**아오야마 가문 주택**

에도 시대(1603~1867)에 이와미 은광을 직접 관리 하에 둔 도쿠가와 막부는 현지의 행정관인 은광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에게 광산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토지까지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토지에는 150개 정도의 마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 마을의 주민들이 부교쇼(부교가 집무하는 관청)에서 공적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오모리 마을까지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1700년대 중반에는 마을을 여섯 그룹으로 나누어 오모리에 머물 때 그룹마다 정해진 숙소에서 숙박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숙소를 고야도라고 하는데 고야도는 사회의 일부로서 존재했습니다. 오모리에서는 유력한 상인 가문이 고야도를 운영하며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에서 나온 법령 등을 각 마을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아오야마 가문 주택은 이 6개의 고야도 중 하나로 다기야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건물은 1800년대 중반에 지어진 것으로 2층짜리 집과 창고가 세워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얀 회반죽 벽과 회색 기와, 그리고 검소한 모습의 목조 디테일은 한 번쯤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오야마 가문 주택은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종종 일반인에게 공개되기도 합니다.